

1. 여성 소설로서의 신소설

신소설은 여성적인 장르이다. 『혈의누』와 『귀의성』, 『빈상설』과 『홍도화』, 『추월색』과 『금강문』 등 대중적인 인기에서나 문학사에서의 영향에서나 주목할 만한 신소설이 모두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고 나아가 여성의 생애를 서사의 초점으로 했기 때문이다.¹ 최초의 신소설이라 해야 할 『혈의누』에서부터 이런 면모는 약여하다. 『혈의누』의 서사를 집화한 사건, 청일전쟁 당시의 평양전투 이후 서사적 행로를 시작하는 사람은 기실 두 명이다. 한창 장년으로 평양서 이름난 한량이었던 김관일과, 그

¹ 신소설을 '여성의 서사'로 연구한 성과로는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0)와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5) 제4장;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0); 김경애, 「신소설의 '여성 수난 이야기' 연구」, 『여성문학연구』 6호, 2001 등 참조.

의 7세 된 딸 옥련. 출발점에서의 자의식으로 말하자면 김관일이 여러 급 위이건만 『혈의누』는 김관일을 외면한 채 철저하게 옥련에게 초점을 맞춘다. 옥련이 중도에 만난 청년 구완서에 대해서도 『혈의누』의 관심은 인색하다. 김관일은 10년간 미국 유학을 경험한 후에도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²할 정도로 더딘 성장을 보이며, 구완서의 변화 역시 옥련과 비교하면 지지부진하다. 옥련이 “고등소학교에서 졸업우등생”(69)으로 명예를 빛내는 반면 구완서는 “계집의 재주가 사나이보다 나은 것 이로구나”(70)라며 축하의 말을 던지는 데 만족해야 할, 조연의 역할에 머무른다. 김관일이 “내 나라 사업을 하리”(14)라는 각성 과정을 거쳤고 구완서는 나아가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느”(86) 강렬한 사회의식을 내비치지만, 『혈의누』의 주인공은 주체적으로는 한번도 그런 거대담론에의 지향을 보인 적 없는 옥련이며³ 가장 앞날을 촉망하게 되는 것 또한 옥련이다.

이후 옥련의 후예들은 위축되고 보수화되면서나마 신소설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중심인물은 명백히 여성이며, 남성은 주변적이고 방계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소설사 특유의 현상이다. ‘정치’나 ‘건책(謹責)’의 단계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가정’과 ‘원앙호접(鴛鴦胡蝶)’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와 다르고⁴ 스탕달·발자크의 프랑스나 괴테·쉴러의 독일과는 물론 『로빈

슨 크루소』와 『파멜라』가 나란히 경쟁했던 영국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아마 일본의 ‘정치’나 중국의 ‘건책’에 가까운 서사 전통으로는 신소설과 비슷한 시기 출현했던 단행 서사체와 역사·전기물을 들어야 할 터인데, 1909년 출판법 공포와 1910년의 일제 강점 후 그 서사적 가능성은 사실상 폐색된다.

더욱이 이들 양식은 신소설에 비해 자발적 호응도가 현저히 뒤떨어진 양식이었다. 량치차오(梁啟超)의 지적마따나 ‘소설’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세계에의 동경과 감정의 대리 표현 때문이다.⁵ 역사·전기물은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제한된 한에서나마 여성과 노동자 등 하위주체들의 호응을 얻은 서적은 역사·전기물 중에서도 여성 영웅의 전기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역사·전기물이 국한문을 저본으로 출판된 데 비해 『애국부인전』 『라란부인전』 등은 순국문으로 출간되었다는 사실과도 호응한다. 대체 근대 초기에 여성 주인공, 나아가 여성의 서사가 대중적인 관심의 핵심에 위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달리 접근하자면, 이 시기 ‘소설’이라는 양식에 있어 남성 주체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연관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담론과 표상의 구조에 있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독자의 구성이라든가 작가의 배경과 개성에 온전히 접근할 수 없는 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회적일 수밖에 없다. 아마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더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질문의 다각적 제기나마 시도해 보도록 한다.

² 이인직, 『혈의누』, 김상만서포, 1907, 69쪽.

³ 옥련 또한 소설 말미에서는 ‘조선 부인’을 위해 헌신하고 그 모범이 되리라는 다짐을 내비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완서의 말에 자극받은 결과, “옥련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또한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85) 같은 절차를 거친 결과이다.

⁴ 일본에서는 1880년대 후반부터 가정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중국에서는 1910년대에 와서야 재자가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원앙호접파’의 소설이 본격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中村光夫, 고재석·김환기 역, 『일본 메이지문학사』, 동국대 출판부,

2001, 160~61쪽; 阿英, 전인초 역, 『중국근대소설사』, 정음사, 1987, 297~303쪽 참조.

⁵ 梁啟超, 「소설과 대중사회와의 관계를 논함」, 최완식·이병한 편역, 『중국사상대계 9-강유위·양계초』, 신화사, 1983, 313~314쪽.

2. 여성의 모험과 여성 신체의 현실성

가정(家庭), 그 이상의 신소설

역사·전기물은 남성적인 장르이고 신소설은 여성적인 장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이 둘은 각각 남성 영웅과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을 뿐더러,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확인할 수 없으며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라는 구분에도 합치할 듯 보인다. 역사·전기물은 ‘민족이라는 주체의 역사’라는 설정⁶에 충실한 반면, 신소설은 당대를 배경으로 일상의 계기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고, 역사·전기물이 문자 언어의 전통에서 출발하는 반면 신소설을 규정하는 것은 구술 언어의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⁷ 또한 역사·전기물이 대부분 국한 문체로 창작되었고, 따라서 한문의 세계에서 국문의 세계로 이동해야 했던 남성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적합한 양식이었다면, 신소설은 순국문 글쓰기를 최대의 특징으로 하는 양식으로서, 새로이 사회적 주체로 소환되고 있던 여성과 농·상·공의 평민층에게 호소하기 쉬운 양식이었다. 역사·전기물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주로 소비된 반면 신소설은 자발적 독서 시장에서 소비되고 연행 문화와 결합되어 수용된다. 이렇게 보면 근대 초기 서사문학의 역사란 남성성과 여성성이 평행 발전한 역사, 두 이질적 선분 사이의 만남이 거의 목격되지 않는 역사처럼 비친다. 역사·

⁶ P.Djuara, 문명기·손승희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47·56쪽 참조.

⁷ 역사·전기물과 독서 체험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160~162쪽, 신소설과 구술 언어의 관련에 대해서는 같은 책 176~177쪽 참조.

전기물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헌신하는 반면 신소설은 사적이고 가정적인 주제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 평행·분리의 구도에 적절히 부합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1890년대에 발전한 일본의 가정소설이나 1910년대 이후 성행한 중국의 원앙호접과 문학에 비해 보면, 한국 신소설의 주인공은 가정적 존재로서의 특질을 현저하게 약하게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가정소설이나 원앙호접과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의 생명은 가정에서 비롯되어 가정에서 끝난다. 일본 가정소설과 그 주변의 『금색야차』 『불여귀』 『젓자매』 등에서, 여성 주인공은 모험이나 기적의 세계와 어떤 연관도 없으며, 남성이 집 밖에서 모험을 감행하는 동안 가정에서 음해당하고 수난에 처한 채 기다려야 하는 인물들이다. 중국 원앙호접파의 여성 주인공들⁸ 역시 신문기자와 사랑을 나누고 국무총리의 며느리가 되는 등 남성 주인공을 매개로 정치·사회와의 접점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존재로 시종한다. 『파멜라』 『클라리사』의 작가인 영국 소설가 리처드슨에 대해 제기되었던 평을 빌자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가사에만 몰두하

⁸ 원앙호접파 문학은 『토요일』 『소설총보』 등 잡지를 주무대로 등장한 저널리즘 문예이며, 연애를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張恨水の 『春明外史』처럼 남성 주인공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견책적’ 요소를 짙게 도입한 사례도 없지 않다. 한국 신소설과 비교하기 더 적절한 것은 차라리 전래 재자가인 소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창작된 비슷한 시기의 言情 소설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대표작 중 하나인 『恨海』가 보여주듯 연정 소설은 정치·사회적 사건을 도입하면서 여성 주인공을 유랑의 길에 오르도록 하기도 한다(張競, 임수빈 역,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전』, 소나무, 2007, 120~140쪽 참조). 신소설과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대목이므로 숙고를 요한다. 여기서 원앙호접파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선택을 한 것은 근대 초기 소설사에서 남성/여성, 공적 영역/사적 영역 사이 대립을 ‘가상’할 때 견책소설에 어울릴 만한 짝패로서 두드러지는 흐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 삼아 원앙호접(ducks and butterflies)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기해 둔다(정동보, 『원앙호접』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중국인문학』 20호, 2000 참조). 張恨水 소설에 대해서는 허근배, 『張恨水와 그의 소설』, 『교육연구』 5호, 1988 참조.

여 살아가는 새로운 중산계급의 인간”⁹이 그 주인공인 셈이다.

반면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결혼으로 낙착되는 서사 구조에 지배되고 있으면서도 집 안의 세계보다는 더 자주 집 밖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혈의누』에서, 『빈상설』에서, 『목단화』와 『추월색』에서 여성 주인공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만, 서사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집 밖에 나선 후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요 그 일환으로서의 연속적인 수난이다.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주목된 것은 주인공의 수난, 특히 ‘성적’ 수난이라는 측면이었으나, 따라서 여성=성적 존재로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신소설의 보수성을 증명한다는 해석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나,¹⁰ 거꾸로 보자면, 성적 수난이라는 형식 속에서나마 여성이 계속 집 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한국 신소설의 여성은 일본의 가정소설이나 중국의 원앙호접파 소설에서 남성에 할당되어 있는 역할, 즉 집 밖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이양받는다. 그 실질적 성과를 차지하고라도 이양의 양상은 그 자체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의 모험’이라는 모티프가 초유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이래 한국 소설사는 여성 영웅의 형상을 다채롭게 보여준 바 있다. 근래 10여년 사이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들 서사는, 실상 신소설과 거의 겹치는 시기의 서사이다. 『이대봉전』 『홍계월전』 『이학사전』 등 신소설에 바로 앞서, 심지어는 같은 시기에 인기리에 읽혔던 이들 여성 영웅 소설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주인

공의 ‘여화위남(女化爲男)’과 전장에서의 무공이다. 『이대봉전』의 장애항, 『홍계월전』의 홍계월, 『이학사전』의 이현(형)경 등은 일찍이 남북한 체자라났거나 전란에 즈음해 남성으로 가장, 난을 평정하고 군주의 인정을 받는다. 이후 가정으로의 복귀 여부나 그 양상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이들은 남편보다 뛰어난 존재이며 한결 시선을 끄는 존재이다.¹¹ 이런 인물 및 서사에 조선 후기의 여성 현실이 어떻게 굴절된 것인지는 아직 논란거리인데,¹² 다시 초점으로 돌아오자면, 이들 예외적 여성조차 ‘남성’의 기호로 위장해야만 집 밖에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홍계월은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관직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여복을 입고 그 위에 조복을 입”(202)은 괴이한 차림새로 군무(軍務)에 임해야 했고, “낙루하고 남자 못됨을 한탄하”(203)는 자기 부정의 세계에서 살아야 했다. 이들은 남성성이라는 기호를 걸침으로써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 존재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가진 현실적 존재라기보다 기호에 대한 욕망 그 자체이다.¹³

⁹ A.Houser, 염무웅·심성완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비평사, 1989, 80쪽.

¹⁰ 각주 1)에서 든 논문들이 실제로 이런 결론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경애, 앞의 글, 130~131쪽의 경우 여성의 미덕이 해결책이 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아 신소설의 순응성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일찍이 있었던 이런 해석의 사례로는 임화의 「신문학사」가 유명하다.

¹¹ 전반적인 논의는 장시광, 「여성 소설의 여주인공과 여화위남」,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을 참조했다.

¹²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경, 「여성 영웅 소설의 유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사제동편,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4, 1995 참조.

¹³ 이 점에서, 동일하게 성적 교차의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랙(drag)’과 ‘여화위남’은 판연히 구별된다. 남성이 여성을 흉내내는 ‘드랙’은 육체의 현실성을 전제한 위에 기호를 도입하는 것, 즉 유희이자 일종의 교란이지만, ‘여화위남’은 기호가 육체를 압살하는 기제이다. ‘드랙’에 대해서는 J.Butler,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인간사랑, 2003 참조.

‘남장 여인’의 서사 전통과 신소설

신소설에서도 남장 모티프는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아마 『목단화』의 정숙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강상기우』에서 은인을 찾는 처녀나 『소양정』과 『금옥연』에서 정혼자를 찾아 가출한 처녀, 『빈상설』에서 첩에 내몰리고 『신출귀몰』에서 계시모에 의해 유기된 후 유학 간 남편을 찾아나서는 부인 등, 적잖은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은 여화위남=남복개착(男服改着) 후 거리에 나선다. 『비파성』의 연희는 정혼자 영락을 두고 다른 데 출가할 것을 강요당하자 남복한 채 영락과 동반 가출하고, 『미인도』의 춘영 역시 강제 결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복 가출하며, 『단산봉황』의 명하 역시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몸종과 함께 남성으로 위장한다. 『절처봉생』에서는 진사의 딸 봉희가 난릿길에 부모를 잃은 후 평민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남복으로 글을 배우러 다니고, 『추천명월』에서는 기생 송련과 여종 김순이 주인공 진사를 따라 남복한 채 유람에 나선다. 신소설로서 드물게 추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구의산』에서는 주인공 애중이 첫날 밤 신랑이 살해당한 후 남성으로 가장해 범인을 탐지하는 일에 착수한다.

이들 남장한 여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빼어난 미모이지만, “남복을 하셨으나 얼굴이 너무” 곱다는(『목단화』 92)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하필 부근에 남장한 범죄자가 등장한 까닭에 혐의를 받은 『단산봉황』의 명하가 예외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이대봉전』 『홍계월전』 『이학사전』 등의 여성 영웅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육체가 아니라 기호로서의 육체를 둘러싼 존재들인 것이다. 후일 『무정』에서 가출한 10대 초반의 영체는 남장에도 불구하고 쉬 정체를 들키고 봉변을 당하지만, 조선 후기와 마찬가지로 ‘기호’일 뿐 ‘현실적 육체’가 아닌 신소

설의 남장 여성들은 결코 성적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신소설 여주인공의 육체는 훨씬 현실적이다. ‘여화위남’의 모티프의 광범위한 차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은 여성인 채 집 밖에 나선다. 물론 이들은 끊임없이 성적 위협에 직면하고, 과업을 추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대신 수난에 쫓겨 다니는 수동적 신체로 살지만, ‘집 밖’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육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신소설의 획기적인 특징이다. 신소설의 주인공은 집에서 강제 축출당하기도 하지만 자주 자기 의지에 의해 집을 나서며, 또한 흔히 가출의 이 두 가지 계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화세계』와 『비파성』 『소양정』, 『추월색』과 『금강문』, 『금옥연』 『미인도』 등의 주인공들은 강제 결혼에 저항하고 정혼자와의 인연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가출을 감행하고, 『홍도화』의 태희는 시가에서 축출당한 후 개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을 찾으며, 『설중매화』의 옥희나 『능라도』의 도영은 위기를 피해 가출한 후 타처로 떠나고, 『신출귀몰』의 이씨 부인은 계시모의 계략에 빠져 유인·납치당할 위기를 넘기고는 아예 남편을 찾아 일본에 갈 것을 작정한다.¹⁴ 『치악산』과 『재봉춘』, 『안의성』 『해안』과 『금국화』처럼 쫓겨난 후 일념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주인공이 없지 않으나, 신소설에서는 소극적 인종의 자세 못지않게 적극적 모색이, 그리고 정지만큼이나 편력과 방랑의 서사가 두드러진다.

비교의 시각을 끌어들이자면, 조선 후기로 편입되는 소설사에 있어 국가나 가문의 와해 없이 여성이 자의로 집을 나서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¹⁴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에서는 신소설에 있어 가출의 유형을 ① 가족 구성원의 미움을 사 축출당하는 경우 ② 남성에게 의해 유혹되거나 납치당하는 경우 ③ 두 계기가 중첩된 경우 ④ 자의에 의해 가출한 경우로 나누고 있다. 이 중 ②와 ④는 신소설에 와서야 목격되는 현상이다.

여성이 집 밖에 던져지는 것은 『최척전』 『숙향전』 『홍계월전』에서처럼 전란의 와중에서이거나, 『사씨남정기』처럼 홍계에 빠져 강제 축출을 당할 경우이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대봉전』 『여중호걸(김희경전)』 『여장군전(정수정전)』 등에서 그러하듯 가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이다. 이 시기 소설에서 여성의 서사에 늑흔(勒痕) 문제가 얹힌 경우는 많지만, 부모의 결혼 강요에 맞서 여성 주인공이 독립 변수로서 가출을 결행하는 서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당할 때 주인공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최척전』에서처럼 자결을 기도하거나 『김진옥전』에서처럼 앓아누운 채 기껏해야 우연히 날아든 청조(靑鳥)의 다리에 편지를 묶어 띄우는 것이다.¹⁵ 남녀 사이의 만남에 있어서도 18·19세기의 소설에서 전형적인 플롯은 ‘집 안의 존재’인 여성에게 남성 주인공이 ‘침범’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¹⁶ 이 ‘절단지기(折檻之讖)’의 사건 이후 여성에게 주어진 몫은 남성 주인공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일 따름이다.

집 밖에서 성적 위협에 처하는 주인공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씨남정기』에서 보듯 그 위협의 정도는 미약하며, 그것도 미혼인 여성 주인공에게 주어진 현안이라기보다 『유충렬전』의 모친 같은 기혼의 조역에게 넘겨지는 문제이다. 조선 후기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현실적 육체는

¹⁵ 본문에서 썼듯 ‘국가나 가문의 와해’, 특히 전란(戰亂)이라는 상황이 여성 주인공의 수동성을 일변시키는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조위환의 한문 단편 ‘최척전’에서 최척과 결혼한 옥영은 정유재란 때 남장한 채 일본으로 끌려가고, 이어 중국과 베트남까지 오가는 드넓은 공간적 편력을 보인다. 정조를 지키기 위한 자결이 추천되다시피 했던 당시 끝끝내 살아남아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최척전』에 대한 논의로는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양상,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소설사연구반,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여정』, 소명출판, 2013, 275~284쪽을 참조했다.

¹⁶ 더욱이 이 침범은 흔히 여성 주인공의 무의식적 욕망을 남성 주인공이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양해된다.

어디까지나 남성 주인공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신소설에 와서 비로소 여성 주인공은 개방된 현실적 육체를 갖고 스스로의 독립적 의사로 가출을 감행하며, 끝끝내 침해당하지 않고 ‘순결’로써 자신을 증명할 서사적 역할을 할당받는다. 남성성의 기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이 악화되는 반면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과 투쟁은 눈에 띄게 격화되어, 여성을 둘러싼 욕망—따라서 여성 주인공의 수난—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까지 조정되는 것 또한 신소설에 와서이다.

3. 서리(霄吏)의 딸, 개체성의 감각

신소설, 평민의 딸의 처소

여성이 집 안의 존재로 간주되었던 시절, 신소설의 주인공은 집 밖에서 당연히 성적 위협에 처하지만¹⁷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인공이 홀몸이어야 한다는 것, 즉 동반자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출이라는 사건에 남성 주인공과의 분리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성 주인공이 홀로 거리에 나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꼭 쉽지는 않다. 갑오개혁으로 계급 철폐가 선언되

¹⁷ 집 밖에 나선 ‘거리의 여성’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런 생각은 종종 신소설 텍스트 내부에서도 표현된다. 예컨대 『빈상설』에서 악비 금분이 “만일 혼자 나섰을 말이면 몇 걸음 안 나아가서 발길에 툭툭 채이는 홀아비에게 붙들려서 내외국 신문에 뒤떠들었을 터인데”(108)라고 하고 있는 대목이나 『행락도』에서 “설혹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홀아비가 도망꾼을 잡아 사는 데는 도리어 찬성”(107)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대목 등이 그렇다.

있음에도 반상(班常)의 구별이 엄연하던 1900년대, 양반가 부녀라면 어디 가나 시비(侍婢)를 동반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설혹 주인공을 유인해 내는 경우라 해도 시비의 동행을 막을 수는 없다. 참판의 딸인 『목단화』의 정숙의 경우에 보이듯 주인공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런 시비를 미리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역시 참판의 딸이자 참의의 며느리인 『치악산』의 이씨 부인을 몰아내려면 충비 검홍을 박살하는 절차를 먼저 치러야 하고, 첩이라 해도 김승지의 실내(室內)인 길순을 살해하려면 침모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이렇듯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충성스런 여종은 주인의 곁을 놓치지 않고 따르게 되어 있다. 『빈상설』의 난옥, 즉 승지의 딸이자 판서의 며느리인 이씨 부인은 상노또복과 그 누이를 동행한 채 길을 나서고, “누대 명문거족”의 외동딸인 『미인도』의 춘영은 강제 결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몸종 계향과 더불어 가출한다. 『단산봉황』에서 참서의 딸 명하는 시비 춘성과 함께 방랑을 시작하고, 『행락도』에서 전 병마절도사의 후처 임씨는 늘 충직한 할멈과 함께한다. 이들에게 있어 시중드는 몸종의 존재란 분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몸종들 역시 대리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단산봉황』에서 또 다른 몸종 화영은 주인공인 양 가장하고 대신 초례청에 나섰다가 며칠 후 자살함으로써 주인공의 가출을 완벽하게 은폐해 주기마저 하는 것이다.

평민의 딸의 사정은 다르다. 『현미경』에서 중 9품 감역의 딸인 빙주는 딸 그대로 혈혈단신이며, 『모란병』에서 전 선혜청 고지기의 딸 금선은 혼자 몸으로 우연한 구원이나 의지해야 하고, 『화세계』에서 이방의 딸 수정 역시 홀로 길을 나설 밖에 없다. 신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명문 대가의 후손이기보다 말단 관료, 흔히는 겨우 9품 직함을 받아낸 중인 계

층의 자손이다. 『광악산』의 태희는 유명무실한 동지(同知)의 딸이고, 후일 감리(監吏)의 며느리가 되는 『옥호기연』의 금주 역시 장옷 대신 “치마를 쓰고”(9) 외출하는 것으로 보아 중인 집 여식일 것이며, 『세검정』의 보옥은 차함(借娼) 없는 생원의 딸로 이방의 양자와 정혼한다. 그런가 하면 『비파성』의 연희는 일본인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서주사의 딸이고, 『화의혈』의 기생 선초와 모란 자매는 호방인 아버지가 첩에게서 낳은 딸들이다. 돌이켜 보면 『혈의누』의 옥련 역시 부유한 장사꾼인 최주사의 외손녀이자 다만 ‘한량인 김관일의 딸이었고, 『귀의성』의 길순은 ‘상사람’을 자처하는 강동지의 딸이었다. 강동지 부인은 “같은 상사람끼리 혼인하는 것이 좋지”(3)라며 딸을 승지의 첩으로 바쳐버린 남편의 소행을 원망하곤 했던 것이다.

최찬식에 이르면 『안의성』의 정애는 비록 “대대 남행으로 유명하던” 즉 읍관(幕官) 벼슬의 내력이 있는 집안 후손이기는 하나 일찍이 부모를 잃은 후 영락하여 생선장수 오빠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처지요, 『해안』의 경자는 “한미한 농민”의 딸로서 그나마 부친이 세상을 뜬 후 샅바느질 품을 파는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고 있으며, 『능라도』의 도영은 “평양 이숙”이었던 부친이 별세한 후 오라비가 “노동도 하여보고 혹 장사도 하여보며, 심지어 평양 진위대 병정까지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찬식의 출세작이었던 『추월색』의 정임의 경우 시종관 출신 부친에게서 났고 정혼자의 아버지는 승지로서 군수에 임명되지만, 하인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소설 속 풍경이란 서울 양반가의 것은 아니다. 비록 가문의 배경이 시종이요 승지라는 관직명을 빌어 설정되어 있을지언정 그 딸이요 며느리감인 주인공이 몸종 없이 살고 홀로 집을 나설 수 있는 감각이란 평민 혹은 중인층의 감각이다.¹⁸ 양반의 생

활이란 남성 주인공이 외출할 때도 우산 든 하인이 배행하는 것이 당연한(『빈상설』 48)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여성 주인공을 홀로 길 위에 던져놓았던 신소설의 감각은 곧 비(非) 양반의 속성을 드러내는 감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최초의 여학생들이 양반의 딸이 아니라 고아나 별실(別室) 출신이었다는 실증적 사실과도 통한다.¹⁸ 주인공 정희를 두고 “저 아이 골격이며 외양을 사면 뜯어보아도 무지막지한 사람의 자식은 분명 아니니” “봉이 닭의 짝이 아니 되고 기린이 우마에 섞이지 아니”하리라고 일컬었던 『절처봉생』류의 감각(69)이란 신소설 일반에서는 예외적인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상사람’의 딸 길순이 요조(姦竊)한 범절을 보여주고 반면 김승지의 정실부인이 투기와 음란이라는 면모를 내비침으로써 “이년, 이 개잡년아/네가, 숙부인 (…중략…) 뺑대 부인이라도 너 같은 잡년은 없겠다”(하 119)

18 여기서 작가 최찬식이 중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후의 舊吏 시인’이라 불린 아버지 최영년은 서울 아전 출신으로 전형적인 친일 부르주아였다(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24~31쪽 참조). 아울러, 왕족 출신이며 조부가 대원군의 측근이었던 이해조의 경우(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16~23쪽), 특히 1900년대에 창작한 대부분의 소설에서 양반 가문 출신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텍스트의 계급의식이 작가의 계급에 직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소설에 있어 계급의식이 민족의식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그것이 작가의 배경 및 정치의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제기해 두고자 한다. 서자 출신인 이인직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이고, 양반가 출신이라는 외 생애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김교제 역시 상업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보아 주변-신흥계급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이인직의 생애에 대해서는 田尻浩行,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2006, 27~41쪽, 김교제의 생애에 대해서는 최원식, 앞의 책, 2002, 111~113쪽 참조). 이해조는 왕실의 족척(族戚)이지만 능참봉에 그친 아버지의 이력이나 그 자신 양무아문에서 실무관료로 재직했던 사실 등을 생각할 때 주변부-신흥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구연학의 경우 대한제국기 番飛驒宮補 및 主事로 근무한 경력이 보고되어 있다(이해조에 대해서는 송민호, 『동농 이해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2; 구연학에 대해서는 최원식, 앞의 책, 2002, 212~214쪽 참조).

19 이화여대 백년사 편찬위원회 편, 『이화백년사』, 이화여대 출판부, 1994 참조.

라는 단죄를 받고 ‘처형’된 이래, 신소설은 언제나 평민의 딸들이 거쳐하기 편한 처소였다.²⁰

계급 교차로서의 결연담

이런 계급적 감각이 확장되면 『재봉춘』처럼 백정의 딸과 참서 아들의 결연이 합법화되기도 하고, 『화의혈』에서처럼 기생이 ‘의기 남자’와 결연하기도 하며, 심지어 『추천명월』에서 보듯 몸종이 주인공 역할로 승격되기까지 한다. 『빈상설』에서 뚜쟁이 화순집의 조카딸 옥희가 명문 이승지 집 며느리가 되고, 『설중매화』에서 시비 난향이 악한이지만 양반가 출신인 안재덕에게 혼인증서를 받아낸 후에야 하룻밤을 허락하는가 하면, 『금의쟁성』에서 “시골 상한배 집” 딸이 완고 양반의 며느리가 되는 등, 신소설의 남녀 결연에는 계층 사이 교차가 풍성하다. 1910년대라면 여기 “작위를 받아 화족이 된 외에는 다 평민”(『금의쟁성』 83)이라는 친일적 감각이 개입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신분 상승을 갈망하는 중인과 평민 계층의 무의식이었던 듯 보인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대신 남녀 간 결연을 통해 신분 상승을 바라보는 욕망이란 물론 보수적인 욕망이다. 충돌하는 두 계층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감각이기도 하다. 판서의 아들과 결혼한 생선장수의 여동생

20 조선시대 소설에서도 ‘이속(吏屬)-평민의 딸’ 모티프가 적잖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두고자 한다. 춘향이 가장 유명한 주인공일 텐데, 그 밖에 『운영전』이나 『심생전』 등에서는 궁녀나 서리의 딸이 명문가 아들과 결연 직전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춘향전』 외 『운영전』이나 『심생전』의 결말은 비극적이며, 여성 주인공은 그 사실을 당연시한다. 민사(閔死) 직전 『심생전』의 여성 주인공은 유서에서 “女蘿가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다며 자신을 주재님은 담쟁이덩굴에 비유한다.

(『안의성』), 서울 계동 황참서 가 며느리가 된 농민의 딸(『혜안』), 평양 군수를 역임한 승지의 아들과 결혼한 이숙(吏屬)의 딸(『능라도』) — 이들은 일찍이 김승지의 첩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은 길순의 운명을 망각해 버린 주인공들이며, 동시에, 부당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승지를 살해한 후 그 ‘의기’ 하나로 감역의 딸에서 협판의 양녀로 승격한 『현미경』의 빙주의 운명에서 일면만 기억하려는 주인공들이다. 한편에는 『모란병』 『광악산』 『금강문』 『세검정』 『옥호기연』 『비파성』처럼 중인 계층 자녀들끼리 맺어지는 소설 또한 풍성하고, 또 한편에는 양반 출신의 정숙한 주인공과 평민 출신 간혹한(時)계모나 첩이 맞서는 『빈상설』 『치악산』 『목단화』 『구의산』 『봉선화』 『화상설』 『신출귀몰』 『추천명월』 『금국화』 등의 텍스트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가운데, 그러나 신소설을 특징짓는 예의 ‘여성 주인공의 수난’과 그 귀결로서의 ‘부부 중심성의 확인’이란 비(非) 양반의 사회적 감각을, 또한 진보적이었다가 점차 보수화된 그 감각의 변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개 순결성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는 데 골몰함으로써 만족스런 결말을 맞이하는 신소설의 주인공들은, 여성의 현실적 신체를 드러내고 집 밖으로의 모험을 감행하는 변화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한 발작을 더 디디지는 않는다. 『혈의누』나 『홍도화』 같은 초기작을 통해 다소 다른 양상이 목격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여성 주인공의 모험은 결코 확장을 위한 모험이 아니다. 흡사 『로빈슨 크루소』와 『파멜라』의 서사를 결합한 양, 신소설은 길 위에서 떠돌면서, 그러나 개발과 정복을 목표 삼는 대신 성적 위협 속에서 육체의 순결성을 지켜내기에 몰두한다. 집 밖에서 보낸 시간 동안 신식 교육을 받는 주인공이 종종 등장하기는 하지만, 교육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으며, 직업을 찾아

사회적 삶을 개척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드물다. 『목단화』의 정숙이 남장한 채 교사가 되고, 『안의성』에서 악역이었던 봉자와 영자는 출옥 후 간호부가 되고, 『능라도』에서 도영이 부인 다과점 주인과 친교를 맺으면서 간호부가 되어 “월 15원” 급여를 받으며, 『부벽루』의 김씨 부인이 ‘최이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전도부인처럼 사는 것이 그나마 직업과 생활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주인공 두 명이 모두 교사가 되어 남자와 교섭 없는 자립적인 생활을 할 것을 표명한 『경중화』는 1920년대의 소작(所作)이다.

4. 여성 주인공이 이른 지점, 그리고 그 너머

‘동부인(同夫人)’으로의 낙착

『천중가절』이라는 연설체 소설에 잘 드러나 있듯 1900년대 당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교사와 전도부인을 제외한다면 조산부라든가 은행·철도·우편국의 사무보조원, 그리고 방물장수·밥장수·술장수 혹은 샅바느질꾼 등에 국한되어 있다. 『절처봉생』의 이진사가 성균관 교수가 되고 『월하가인』의 심진사가 서기를 거쳐 외부 협판이 되는 등 남성 주인공에게는 고급 관료로 출세할 길이 남아 있지만²¹ 여성에게 그 같은 가능성은 당연히 봉쇄되어 있다. 결국 상층을 꿈꾸는 여성 주인공이

²¹ 물론 이런 출세의 길은 1905년 이후 보호국 체제 하에서 줄어들기 시작해 191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봉쇄된다. 『추월색』의 영창이 관료가 되는 대신 ‘문학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맥락에서 기억해 볼 만하다.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사회 진출의 경로란 ‘동부인(同夫人)’의 자리, 성공한 남성 곁에 서 있음으로써 ‘여자계’의 대표 인물로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일찍이 조선에 이주한 외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목격된 바 있던 부부 중심 가정의 면면은, 특히 ‘동부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상적으로 각인된다. 수교(修交)가 개시된 이래 조선에 온 외국인들은 “아라사 공사와 공사 부인이 (…중략…) 야소 탄신날 경축회를” 열고²² “영국 총영사 조단 씨와 부인이 영국 여왕 폐하 등극하신 지 육십 년 경축회를 영국 공사관에서” 거행하며²³ “미국 공사와 공사 부인이 (…중략…) 손님들을 공관에서 맞을 터”²⁴라는 등 각양의 사교 활동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의 관습을 빈번하게 드러냈다. “일본 공사 가등씨와 공사 부인” 등 일본인도 마찬가지여서²⁵ 오래잖아 기념식이나 운동회 같은 공식 행사에서 “대청에 (…중략…) 각국 공영사들과 기외 부인네들”이 자리를 잡고²⁶ “내외국 대소 관인과 신사와 외국 부인들이 다 좌석에 참례”²⁷하는 모습은 익숙한 것이 되었다. ‘동부인’의 관습은 남녀동등권의 생생한 지표로 받아들여졌고, 아마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극이 된 듯하다.

1894년 이후 일련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특히 1898년의 만민공동회와 1905년의 대규모 집회·시위 경험²⁸ 그리고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을

22 『독립신문』, 1897.1.9.

23 『독립신문』, 1897.6.24.

24 『독립신문』, 1897.7.1.

25 『독립신문』, 1897.4.1.

26 『독립신문』, 1897.6.19.

27 『독립신문』, 1898.5.31.

통해서 평민층의 사회의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의 하위주체 또한 그러했다.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1898년 하반기 즈음, 9월에는 여학교 찬성회가 발기되었고, 11월에는 백정이 연단에 올랐으며, 12월에는 10대 초반 소년들의 ‘자동의사회(子童義士會)’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제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맞아 지방 아낙네가 충군애국의 뜻으로 연설을 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²⁹ 만민공동회 당시는 집 관 돈을 회사한 과부에서부터 은귀이개를 내놓은 아낙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조가 이어졌고³⁰ 집회 도중 사망한 김덕구의 장례 때는 찬양회 부인들이 묘지에까지 따라갔다. 비록 “각색 금은보패들이며 비단 두루마기에 사인 교 장독교를” 탄 사치한 부인네 사이의 여기(餘技)일 뿐이며 “구차한 회원들은 돌아도 아니” 본다는 여론이 있었으나,³¹ 또한 ‘충군애국’이라는 단정적 명분이 지배하는 와중이기는 했으나, 여성은 이 시기부터 사회적 욕망을 학습하게 되었다. “여자는 거내이불언외(居內而不言外)하며 유주식시의(唯酒食是宜)” 하는 규범이 동요하면서 집 안/밖의 분리 또한 교란되기 시작한다.³²

실제를 문제 삼는다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는 상태를 기약하는 동

28 랑치차오에 의해 『월남방국사』에서 묘사된 바 있는 1905년에 있었던 대규모 저항의 양상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잘 파악되지 않는다. 동학 계열의 진보회원 전국 회합 등 비교적 친일적인 흐름만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다. 『월남방국사』에서는 당시 저항의 상황을 “중로 큰길거리에 날마다 모이고 처처에서 연설할새 이를 잡고 눈을 부릅뜨고 땀을 흘리면서 분주하며 전국에 부보상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출몰하여 전보줄을 끊고 철로를 파하며 혹은 일본 군정을 아라사에 전하니”(14)라고 묘사하고 있다.

29 『독립신문』, 1898.9.29.

30 『독립신문』, 1898.11.11·19.

31 「부인회 소문」, 『독립신문』, 1898.12.7. 찬양회의 반박은 동 12월 10일자 신문 기사에 실려 있다.

32 징후적인 발언의 하나로 「부인회 통문을 좌에 기재하노라」, 『독립신문』, 1898.9.28 참조.

등권에의 희망은 ‘동부인’으로 현실화되곤 했다. 여성에게 요구된 것은 개인으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가정-사회-국가라는 새로운 체계 내에서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이었다. 당연히 과잉의 여성성은 경계된다. 1900년대 끝자락에도 “되지 못하게 주릿대 치마에 포도청 걸을 걷는 여편네들”³³은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만민공동회 당시라면 보수적인 논객들은 불온 분자의 망명이나 효 윤리의 해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공적(公敵)으로 꼽았다.³⁴ 신소설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은 대체로 ‘동부인’의 새로운 관습에 안주하는 듯 보인다. “자기가 여자는 되었을지라도 을지문덕 합소문의 사업하기를 자부하”(15)는 『목단화』의 정숙 같은 독특한 개성이 있긴 하지만, 남편과의 재결합에 일체 신경쓰지 않고 같은 여성들을 ‘자매’라 칭하면서 가부장적 형제애(patriarchal fraternity)³⁵를 넘어선 연대를 시험하는 이런 인물은 다른 텍스트에선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능라도』의 도영처럼 간호부로 자립을 이룬 주인공마저 정혼자가 등을 돌리자 발광을 하고 말았을 정도이니 여느 여성 주인공의 의존성이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인 육체성을 지니고 집 밖에 나서기 시작한 주인공들은, 그러나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과함으로써만 사회·국가와 연결될 수 있었고, ‘동부인’이란 새로운 관습과 타협해야 했다. 평민 혹은 중인 계층의 딸들에게 있어 봉건의 영광과 근대적 출세의 가능성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존재, 즉 명문가의 개명한 아들이 최선의 짝으로 추구되었다는 사실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다만 이런 보수적 감각이 뒤로 갈수록, 특히 최찬식이라는 작가에 있어 강화된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필

33 「허튼수작」, 『대한매일신보』, 1910.6.15.

34 「조약소 여당」, 『독립신문』, 1898.11.4.

35 ‘가부장적 형제애’의 개념 및 사회 구성에 있어 그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C. Pateman, *Sexual Contract*, Stanford Univ. Press, 1988, pp.78~79 참조.

요가 있다. 『혈의누』나 『화의혈』이나 『현미경』에 있어 부수적인 데 불과했던 신분 상승의 욕망이 전면화되는 과정은, 주인공이 사회·국가와 지녔던 연계성이 희박해지면서 오직 가정 내의 개별적 존재로 소비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소설의 남성 주인공—선각자와 그 아들

집 밖으로 나선 후 여성의 길이 봉쇄되어 있는 반면 신소설에서 남성의 행로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 사실은 공간적 도약을 이룬 경험의 다과(多寡)에서부터 드러난다. 『혈의누』나 『추월색』 같은 인상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밖에 여성 주인공의 외국 경험이란 『설중매화』와 『춘몽』, 단기간 체류를 포함해도 『능라도』 정도를 포함하는 데 그칠 따름이다. 『은세계』에는 남동생 옥남과 함께 10년 넘게 미국 유학을 하는 옥희라는 주인공이 있지만, 옥남이 “목적 범위가 한층 더 커져서 천하를 한 집같이 알고 사해를 형제같이 여겨서 (...중략...) 구구한 생각이 없고 활발한 마음이 생기”는 일취월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반면 옥희는 “여자의 편성으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아니”한 까닭에 “생각하는 것은 그 어머니라 공부도 그만두고 하루바삿 고국에 가고 싶”어하는 향수(乡愁)에 집착한다(111~112). 남성이 즐겨 세계를 편력하는 데 비해 여성 주인공에게 있어 집 밖에서의 세계 경험은 위협과 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혈의누』의 구완서처럼 주도(周到)한 계획 하에 유학을 떠나거나 『추월색』의 영창처럼 외국인 구원자의 손에 이끌려 해외로 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모란병』 『육호기연』 『안의성』 『해안』처럼

충동적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란병』의 수복은 여 주인공 금선의 자취를 쫓다가 오해·실망한 후 유학길에 오르고, 『옥호기연』의 막동은 일시 금주를 납치했다가 후환을 우려해 세계 일주에 나서며, 『안의성』의 상현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 갈등이 심각해지자 도파성 세계 일주를 떠나는가 하면, 『해안』의 대성은 아내가 가출했다는 거짓 정보를 받고 찾김에 세계 일주길에 올랐다가 미국 워싱턴에 정착한다.

이처럼 충동적인 발정(發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생산적이다. 『안의성』의 상현은 각국의 “유명한 정치가 재산가”에게 환영을 받으며 “다수한 기부금을 보조”받는 가운데 일본·중국을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산업과 풍물을 시찰하고, 『해안』의 대성은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워싱턴에 정착해 의학 공부에 몰두하며, 『옥호기연』의 막동은 유럽 여행의 경험을 통해 완악한 성품을 스스로 교정하기까지 한다. 로마의 유적을 보며 “비록 제왕의 존귀로도 그 권세를 자퇴하고 마음을 교만히 하여 스스로 호올로 기꺼우려 하다는 마침내 여러 백성에게 버린 발”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30) 파리인들의 방탕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옛말에 빈천하여야 영웅이 되고 곤란하여야 지혜가 생기나니”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부잣집에 태어나 부랑하게 살아온 생애를 반성하며(33~35) 이탈리아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없고 더욱 겸손”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낸 샤르데냐 왕 에마누엘레 2세에 경탄하는(36) 식이다.

『옥호기연』의 막동뿐 아니라 서사가 진행되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갱생하는 남성 주인공은 드물지 않다. 상해로 떠난 『빈상설』의 정길, 군대 해산 후 전국을 유랑하는 『화세계』의 구정위, 학교에 다니겠다고 집하는 아내와 헤어진 후 뒤늦게 유학길에 나선 『경중화』의 범칠 등은 소설의 시간이 흘러감과 더불어 현저하게 변화와 성숙을 보여주는 인물

들이다. 악역을 맡은 여성들의 변화가 서사가 사실상 종결된 후에야, 그것도 응징과 용서에 의해 나타난다면 남성의 변화는 서사 한복판에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³⁶

5. 여성성의 정치적 함의와 신소설

역사·전기물과 신소설 사이, 그리고 신소설 내부에서도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 사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절을 가상해 보기는 어렵지 않다. 역사·전기물은 『애국부인전』 『라란부인전』 같은 예외에도 불구하고 대개 남성-영웅을 내세워 민족사를 기술하는 서사물이었고, 반면 신소설은 여성-주인공을 내세워 당대 사회를 보여주는 서사였다. 역사와 당대성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남성 영웅(hero)과 여성 주인공(heroine) 사이의 거리가 역사·전기물과 신소설 사이의 분절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 분절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분절처럼 비치기도 한다. 남성은 가정에서 벗어나 우애와 공동체의식을, 나아가 인류에 대한 관심을 지향하는 존재요, 반면 여성은 가정과 성 생활에 집착하는 존재라는 관념은 역사·전기물과 신소설이라는 양식 자체를 설명하는 데도 성공적으로 대입되는 듯하다. 신소설이 ‘개혁기의 정치성’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³⁷이면서도 결국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파탄을 드러냈다는³⁸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또한 이같은 남성성·여성성의

³⁶ 신소설의 남성 주인공과 당대성의 연관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린 제1부 3장 ‘전쟁, 국가의 기원’ 참조.

³⁷ 이재선, 「신소설에 있어서의 갑오개혁」, 『새국어생활』 4권 4호, 1994, 4쪽.

대립 구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서사를 성적 수난과 귀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반면 남성 주인공의 서사는 모험과 이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성성과 남성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대립에 적절히 대응된다.

이런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소설이라는 양식 일반의 문법을 두고도 풍성한 정치·사회적 독해는 여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신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서사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에 따르는 육체의 현실화라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으며, 중간 계급의 사회적 감각과 그에 수반하는 계급 간 충돌과 타협의 정황을 포착해 내고 있고, 이주-모험과 망명-복귀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 기획 중에서 후자의 서사를 상징화해 보여주고 있다. 1900년대 당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구분이 오늘날처럼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부기해 둘 만하다. 1900년대 후반, 특히 1907년의 평민적이고 친일적인 '신내각' 구성 후 공공의 내각 대신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반민족적 태도에 있어서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비도덕성에 의해 더욱 가차 없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부인의 태도, 첩과의 관계, 성 도덕에 있어서의 문란 등 사적인 약점이 여지없이 폭로되었고, 그것이 곧 공적인 '악'의 증거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신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겪는 성적 수난과 순결성의 유지 또한 순전히 사적인 의미로만 소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순결성이 여성은 물론 남성의 공적인 삶에도 관여하던 시기, 순결성이란 증명해야 할 도덕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단일 주체로의 열렬한 호명이 1900년대의 특징이었다면,

국가라는 경계 내부에서 성과 계급과 국가 기획의 차이를 보여준 신소설은 당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창(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소설 내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여성 주인공 사이에 뜻밖에도 두드러지는 개성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해 둘 수 있다. “이십이 훨씬 넘은 듯한 노처녀”로 “키도 훌쩍 크고 몸도 굵직하고 (…중략…) 여중영걸로 난” 주인공이나(『운외운』) 시비에게 “인두관을 집어던지”고 “자를 집어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까지 “포달을 띄”지만 정혼의 의리를 지키는 데는 결연했던 주인공(『단산봉황』), 초례청에서 스스로 신랑을 선택할 정도로 ‘완패’한 신부인 주인공(『검중화』) 등은 아리따고 정숙한 신소설의 전형적 주인공에 비할 때 이채를 발하는 여성들이며, “우리는 (…중략…) 애정의 속박을 받지 말며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겠다고 깔깔대고 웃는(49) 『경중화』의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이라는 급진적 결론을 사양치 않았던 조선시대 『방한림전』을 연상시키는 바 있는 흥미로운 예외이다. 『홍도화』의 태희나 『목단화』의 정숙과 『현미경』의 빙주 등, 1900년대의 개성적 주인공들은 이렇듯 1910년대 신소설에도 간간히 후예를 남기고 있는데, 가정으로의 귀환으로 종결되고 흔히 친일의 색채를 띠었던 신소설의 서사 속에서나마 이런 이채는 그대로 작은 변이의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다.

38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 신소설의 피카로(Picaro)¹

악(惡)과 잔혹 취미

1. 선과 악—단순성과 치밀성

주도면밀한 선(善)이란 드물다. 무사심(無邪心)은 선의 중요한 특징이다. 간혹 신원을 감춰두는 자선이 있을 뿐 선은 단순하고 솔직하며 자연스럽다. 계획하고 머리 굴리며 미래를 넘보는 일은 선의 본성에 어울리

¹ '피카로'라는 어휘는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소설에 등장하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로는 다소 부조화하다. 16·17세기 스페인 제국주의 절정기의 양식인 피카레스크 소설은 하층 출신 악당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 생애를 회상한다는 서사를 축으로, 모험의 연쇄라는 형식 속에 각계 각층 인물을 만화경처럼 보여주며 자조적 해학을 주된 정서로 한다. 일인칭 시점에 자서전·서간체·대화체 형식의 실험이며 사건을 연쇄시키는 구성 등 신소설과는 크게 다른 서사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악인 혹은 부랑아를 내세워 일상적·사실적 세계를 묘사했다는 점에서는 다소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표제에서는 '악인'이나 '악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한다. 김춘진,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 아르케, 1999, 25~30·68~77·119~120쪽 등 참조.

지 않는다. 가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악(惡)은 진작부터 머리 굴리는 데 열심이다. 악은 제 존재를 위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저 유명한 '라모의 조카'나 사드의 주인공들을 통해 목격할 수 있는 솔직하고 과시적인 악은 특별한 국면의 산물일 뿐이다. 더 더욱 '모든 가치가 대기 속에 녹아내리는' 근대가 당도하기 전이라면 악의 입지는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악은 위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악은 자연을 거스르면서 '자연인 체'하기 위해 온갖 세부까지 조작해 낸다. 악인들은 사냥감의 동선(動線)을 재고 요소 요소에 장애물과 함정을 두면서도, 그것이 우연한 위험인 양 꾸미고 자기 자신은 선인인 양 가장한다.

선과 악에 대한 오래된 편견으로는 그렇다. 브레히트가 「사천(四川)의 선인(善人)」에서 순진무구한 선이란 불가능함을 설파한 적이 있었고, 비슷한 주장이 적지 않지만, 편견의 내력은 오래다. 신소설에도 계산과 모략은 악인의 뒤편을 증명하는 대목이 흔하다. “그날 밤 일은 다 옥단의 찌에서 나온 일이라. 오동나무 위에 올라섰던 사람은 고두쇠요, 담 너머로 내다보며 소곤거리던 계집은 옥단이요, 담 밖으로 지나가다가 도적 튀기던 사람은 최치운이라. 고두쇠가 담 위에서 슬쩍 뛰어 내려오며 최치운이를 아프지 아니하게 열러 차고 달아나는 시늉을 하다가 몽둥이를 끌고 기침하며 나온 것이요, 김씨 부인이 넘어진 것도 부러 넘어진 것이요, 옥단이가 가슴앓이 앓는다는 것도 백판 거짓말이라.”²

『치악산』에서 의붓며느리 이부인을 없애려고 안달 난 김부인은 시비(侍婢) 옥단과 짜고 모해를 계획한다. 이부인이 남편 없는 새 부정을 저지

² 이인적, 『치악산』, 유림서판, 1908, 99쪽.

른 양 가장하기 위해 옥단과 고두쇠를 동원해 밀회 장면을 조작하고, 가장인 홍참의가 숨어 지켜보게 하면서도 한량 한 명을 배치해 홍참의가 직접 개입하기 전 상황이 종료되게 하며, 옥단과 고두쇠의 알리바이까지 만든다. 악은 누구라도 속여넘길 수 있을 만큼 치밀하다. 『귀의성』에서는 살인을 계획하고도 ‘자연스러운’ 꾸밈을 위해 장장 1년여를 기다리고, 『금강문』의 악인은 방물장사를 동원해 주인공을 모함하면서 “그 노파가 증거인으로 잡힐까 염려하여 만일 불여의한 일이 있거든 그 노파를 역적죄인 잡들 빼앗어 올 작정으로 가장(假裝) 별순검까지 매복”시킨다.³ 악이 이토록 철저해야 하는 까닭은, 다른 질서가 자연 그대로인 반면 악은 ‘자연을 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악이 가장해야 하는 ‘자연’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질서이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르는 것”이라는 속담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악인들은 “입에는 꿀을 발랐으나 가슴에는 칼을 품”고 있다. “눈물도 아니 나는 눈을 이리 씻고 저리 씻고 (…중략…) 두 눈이 발개도록 비비더니 가장 눈물이나 났던 체하고”⁴ 심지어 “치마끈 끝에 고춧가루 물을 들였다가 (…중략…) 치마끈으로 눈을 흠착흠착 씻”어 눈물을 내는⁵ 표리부동은 상전 앞에서라고 예외가 아니다. 악인은 오로지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할 뿐 공감의 윤리를 알지 못한다. 『귀의성』의 점순과 『치악산』의 옥단은 상전의 수족 노릇을 하지만, 공감의 눈물은 지어낸 것일 뿐, 상전의 처지엔 아랑곳없다. 이들은 속량과 일확천금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따름이

³ 최찬식, 『금강문』, 동미서서, 1914, 60쪽.

⁴ 이인직, 『귀의성』, 중앙서관, 1908, 76쪽.

⁵ 이인직, 『치악산』, 『한국신소설전집』 1, 1968, 297쪽.

다. 이인직은 “울음판에 와서 제 친정 생각하고 우는 사람”(『귀의성』 15), “강동지의 마누라가 우는 소리를 듣고 제 설움에 우는 것” 등 울음판 속에 제 감정을 이입하는 인물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중심적 공감이라 할 이런 면모는 선(善)의 마지막 보루다. 춘천집 묘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김승지가 용서받는 것도 그 “슬퍼하는 기색과 다정한 모양”(하51) 덕이다. 반면 악인들은 공감 능력을 일체 결여하고 있다.

“침모가 춘천집 우는 것을 보더니 소리없이 따라 운다. / 김승지가 춘천집 울음소리를 듣다가 가슴이 뻥작지근하여지면서 눈물이 떨어진다. / 잠들었던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찌하여 깨었던지 아이까지 운다”(『귀의성』 87). 신소설에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 빙충맞고 우유부단하고 때로 악의 유혹을 받더라도 공감의 능력이 있는 한 결정적인 위험은 없다. 『귀의성』의 침모는 선과 악 사이를 오가지만 “본래 악심이 없는 계집이라”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악행에의 지름길을 닦는 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다. 점순은 흐드러진 울음판에서도 “같이 슬퍼하는 입내를 내느라고 (…중략…) 서양 손수건을 손에 쥐고” 우는 체 꾸밈 뿐이다(87). 『귀의성』의 본처나 『치악산』의 계모처럼 자기 연민에는 진정이지만 공감의 능력이 없는 인물들도 있다. 이들은 “나는 시앗만 없으면 돈 한푼 없더라도 아무 근심 없겠다 (…중략…) 내가 자식이 있느냐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있느냐, 영감 한 분뿐이지”(『귀의성』 79), “나는 그 세력 좋은 이판서의 따님을 며느리님으로 모시고 있느라고 속도 많이 썩었소. 내 가슴 속을 헤치고 보면 두엄자리가 되었을 것이요”(『치악산』 287)라는 하소연을 늘어놓으면서 악에 가담한다. 그렇지만 악이 완성되는 것은 감정 자체를 거세해 버린 이들에 와서이다. 주변적 관계에까지 미치는 공감이 선이고, 부부 관계나 부모·자식 관계 같은 좁은 범위에만 국

한된 감정이 악의 출발점이라면, 악을 주도하는 것은 ‘나’ 이외의 관계에 매이지 않는 유아론적(唯我論的) 자세다.

2. 악의 생생한 빛깔—시각성과 개인주의

음란하고도 노골적인 언어

『귀의성』에서 점순은 이채로운 존재다. 『귀의성』은 여성 주인공이라 해야 할 강길순(춘천집)만이 무채색으로 고요한 가운데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다 뚜렷한 개성을 선보이는 세계지만, 그중에서도 점순의 존재감은 특별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귀의성』은 처음부터 도덕률과 관습법에서 어지간히 자유로운 감각을 보여준다. 춘천 삼학산 아래 강동지집, 딸 길순이 악몽을 꾸고 소리지르는 서술에 강동지 내외가 놀라 깨어나는 『귀의성』의 첫 장면은 그림밤 무렵이 배경이다. “달그림자가 지구를 안고 깊이 들어간 후”,⁶ 즉 지구에 달이 가려버린 시기인 것이다. 딸 방에 갔던 내외가 더듬더듬 들어와 보니 안방이 칙칙같이 어두운 중, 강동지는 담배 한 대 태우려고 담뱃대를 찾는다. 그러다 손에 닿은 게 아내의 몸, 강동지는 어느덧 “머리에서부터 더듬어 내려오더니 (…중략…) 담뱃대는 아니 찾고 마누라를 드러누이려” 한다. 허나 아내는 매몰차다. 딸 신세는 다 남편이 망쳤다며 한바탕 지청구를 하곤 이부자리 바깥에 앵돌아 눕고 만다. 어르려던 강동지도 부아가 나서 “옷목에서 등결잠을 자다가 감기나 들어

⁶ 이인직, 『귀의성』, 김상만책사, 1907, 3쪽.

서 뒤어졌으면” 하는 험한 소리를 남기고 자릿속에 들어간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겨울날 이불 밖에 누운 아내가 추울 건 정한 이치, 그러나 무안하여 이불을 파고들지 못하고 더 대찬 소리로 받아친다. “내가 감기 들어서 거꾸러지지만 기다리는 그까짓 영감을 바라고 살 벌어먹을 년이 있나. 날이나 밝거든 내 속으로 넣은 길순이까지 쳐죽여 버리고 내가 영감 앞에서 간수나 마시고 눈깔을 뒤여쓰고 죽는 것을 봐일 터이야”(7).

‘소설’이란 본래 세속적 장르이며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에 이르면 그 세속성이 현저해지지만, 『귀의성』처럼 ‘상스런’ 행동에 말투를 듬뿍 보이면서 소설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처음 “아미 숙이고” 답하는 요조숙녀였고, 잔뜩 낙망했을 때도 “도련님 날 죽이고 가오”라고 꾸짖는 데 그친다.⁷ 반면 『귀의성』에서 강동지 내외는 그야말로 ‘상(常)스러운’ 탈도덕적 면모를 보여준다. 강동지가 주도하는 비속성(vulgarity)은 악의 선정적 표지로 기호화돼 버린 다른 인물, 여타 신소설에서의 상스러움과도 다르다. 『귀의성』에서 명색 양반이라는 김승지 부인도 상소리가 예사요, 이해조의 『구마검』에서 함진해의 삼취(三妻) 부인인 최씨는 “죽은 마누라를 저렇게 위하시려면 똥구멍이라도 붙어서 아무쪼록 살려 데리고 해로하시지, 남을 왜 데려다 성가시게 하시오?”⁸라는 등 험한 소리를 퍼붓지만, 그것은 그들의 무지와 부덕을 폭로할 뿐이다.

『귀의성』에서의 비속성은 그와 다른 결, 예를 들어 『빈상설』에서 충노(忠奴) 복단 아버지가 제 아낙에게 하는 대사와 통한다: “제미 붙을 오늘 너 하나 죽이고 나 죽었으면 그만이로구나. 이런 때 칼이라도 있으면 내 배를 찌고 창자를 내어 보았으면.”⁹ 상스러움은 악인의 독점물이 아니라

⁷ 『춘향전』 1, 고려서림, 1988, 536·550쪽. 경관(30장)본에서 따온 대목이다.

⁸ 이해조, 『구마검』, 이문당, 1917, 4쪽.

보편적 정념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귀의성』의 비속성은 『빈상설』보다 한결 전면적이며 자의식적이다. 강동지의 경우 딸과 손자의 죽음 후 복수를 실천하는 호협한이 되어서도 상스러운 면모는 여일하다. 마찬가지로 내로라 하는 서울 명문가 주인인데도 김승지 내외마저 모범적 행동거지(decorum)와는 먼 자리에 있다. 김승지는 시종일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할 뿐이고, 김승지 부인은 남편이고 아랫사람이고를 가리지 않고 폭백(暴白)을 퍼붓는다. 계집종에게 “요 박살을 하여 놓을 년”이라는 정도는 기본이고 침모에게도 화풀이 삼아 “춘천집과 베개동서가 되어서 세불이 개 피떡같이 밤낮으로 셋이 한데 들어붙어 있으려는 작정”이나며 음란한 언사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性)을 막론하고 『귀의성』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욕망을 최우선시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점순은 이 모든 이들보다 한수 위다. 계집이요 종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쓰고도 욕망을 멈추는 법이 없다. 서사가 시작될 무렵 점순은 작은돌의 아내요 계다가 젓먹이의 어미다. 춘천집이 아이 낳은 후 유모 되기를 자처할 수 있었으니 아들 순돌은 같은 또래일 것이다. 그러나 ‘순돌 어미’로 불리는 점순은 한번도 자식의 존재에 마음쓰지 않고, 남편에게는 더더구나 등한하다. 김승지 집이 이사하면서 작은돌이 내쫓긴 후 부부 간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다. 성미 팔팔하고 충복인 양 하는 작은돌이었으니 아마 처음부터 잘 맞는 부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작은돌은 김승지 부인이 패악부리는 것을 보곤 “이런 경칠/ 나 같으면 생 ……”이라며 분개하더니, 애꿎은 점순을 “계집이 사흘을 매를 아니 맞으면 여우 된”다며 욱박지른다. 술까지 한 잔 걸치고 온 후에는 더더구나 생트집이라,

9 이해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4~5쪽.

눈치 빠른 점순은 안채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대목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안에서는 부인의 등쌀이요/ 행랑방에서는 작은돌의 주정이라. / 상전의 싸움에는 여장군이 승전고를 울리고/ 종의 싸움에는 주먹 세상이라 / 김승지는 그 부인 앞을 떠나지 못할 사정이요 / 점순이는 서방의 앞을 갈 수가 없는 사정이라 / 김승지는 그 부인 앞을 떠났다가는 무슨 별 야단이 날지 모를 사정이요 / 점순이는 그 서방 앞으로 갔다가는 무슨 생벼락을 맞을는지 모를 사정이라(30).

김승지 내외의 다툼과 점순 부부의 싸움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장면은 거의 대위법적인 화성을 이룬다. 타령조 가락의 서술이 그런 대구를 돌운다. 신분상 현격한 차이가 있고 직접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 묶여 있지만 이 두 부부는 다르지 않은 세계 속에 산다. 남녀유별의 유교적 도덕률은 물론 걸치려 범절마저 팽개친 한복판이다. 법과 도리보다 강짜며 폭력이 훨씬 가까운 일상이다. 점심마저 거르고 한참을 다투던 김승지 내외는 “소나기비에 매미 소리 그치듯이 (…중략…)” 똑 그치더니 다시는 아무 소리도 없다. 었든던 점순이 “혼자 썩 옷”는 것으로 보아 성적 암시가 강한 마무리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점순 같은 인물이 태어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위계는 이미 무너졌고 욕망이 노골화돼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점순은 이 속에서 김승지 부인의 질투를 이용해 춘천집 모자 살인을 제안하고 그것을 치부(致富)와 해방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질투가 들끓을 뿐 막상 구체적 계획이나 방편은 없는 김승지 부인을 유혹하는 점순의 말마디는 징후적이다. “마님 소원을 풀어드릴 터이니 마님께서 춘천 마마의 일을 원내에게 맡기시겠습니까”(77~78).

빨강고 하얗고 파란 점순

점순은 어여쁘다. 점순의 흉계를 눈치 챈 침모가 “인물이 조만치 암전히 생긴 년이 마음이 어찌 그리 영독한고”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보면 곱고도 조출한 생김새인 모양이다. “아마 저 년의 악심은 저 눈깔과 목소리에 다 드러난 것”이라고 보태는 걸로 보아 눈매와 목소리는 야무지다면 야무지고 매섭다면 매서운 쪽인 듯하다. 뒤에 최가와 회룡할 때 보면 “오장이 녹을 만치” 유혹적인 눈웃음마저 있다. 기분 내키면 술 몇 잔 받을 줄 이는데 그때 점순의 얼굴은 “홍모란 한 포기가 춘풍에 헛날려서 너울 너푼 노는 것 같”다. 이 생기 넘치는 외모의 주인공 점순은 행동거지 하나도 예사롭지 않다.

점순의 성격과 행동은 강렬한 시각성을 통해 형상화된다. 지극히 일상적인 거동에서도 점순은 현란한 색채의 조합을 보여준다. 장보려 다녀올 때면 “빨간 고기 하얀 두부 파란 파를 요리조리 곁들여” 들고 “옥색 저고리에 빨간 팔배자” 입은 차림새로 흔들거리며 걷는다.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는 점순의 고유한 개성이다. 『귀의성』의 묘사는 점순을 그려내는 데 이르러 거의 표현주의적인 생생함을 얻는다. 앞질러 말하자면, 점순의 생생한 존재감은 그 최후까지 물들이고 있다. 점순이 죽은 것은 음력 4월 보름날(하 99), 강동지는 점순을 애써 산길로 유인해 죽이는데, 바위에 패 대기쳐 박살내는 잔인한 방식으로다. 이때 점순의 죽은 자취는 “푸른 이끼가 길길이 앓은 바위 위에 홍보를 펴 놓은 듯이 핏빛뽕”으로 남는다. 푸르른 이끼 위에 붉은 보자기 편 듯 선명한 핏자국 — 죽음마저도 인상적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다. 게다가 점순이 죽은 그 순간 마침 부산 앞 바다에선 해가 떠오른다. “바다 위에 아침 안개가 걷어 오륙도(五六島)에 해가 돌아 붙었”다고 한다(하 114).

죽음마저도 현란한 존재, 점순은 악을 창안하는 데 있어서도 독창적이다. 춘천집 모자를 살해하는 데 있어 점순은 독단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금원인 김승지 부인이나 행동대원인 최가도 점순의 한 치 앞 계획을 다 모를 정도다. 심지어 김승지 부인은 살인이 저질러진 후 이튿날에야 범죄의 전 면모를 전해 듣는다. 점순의 본래 계획은 춘천집을 아편 먹여 혼절시킨 후 방에 불을 질러 끝내는 것이었지만, 침모를 교사하려 했던 뜻이 어그러지면서 계획은 대폭 수정된다. 몇 달을 더 기다린 끝에 정부(情夫) 최가를 사주해 봉은사 근방, 지금은 강남 한복판이 돼 버린 산골에서 춘천집 모자를 처치해 버리는 것이다. 춘천집에게는 김승지가 강동 사촌 집에 들렀다 병이 들어 죽기 전 춘천집 모자를 보고지라 한다고 하고, 이웃사람들에게는 춘천집이 외간 남자와 정분이 생겨 도망쳤다고 무고한다. 춘천집 모자를 가마 태워 가는 길에 교군을 때버리고 최가 혼자 모자를 동행하다 산길에서 범죄를 결행하는 것인데, 교군을 따돌릴 때 방법도 교묘하다. 명령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교군들이 불평할 만한 악조건을 강요해 그들이 지레 도망치게 하는 식이다.

악은 이익에 밝고 계산이 빠르며 음모를 꾸미는 데 능하다. 그리고 이런 수단적 합리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들의 개인 중심적 태도다. “서방을 때어버리고 자식은 남에게 맡겨 기르”는(102) 『귀의성』의 점순뿐 아니라 다른 신소설의 악인들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족에 대한 애정마저 즉각 회수해 들일 수 있는 인물이다. 예컨대 『구의산』의 용의주도한 악인 이동집을 보자. 박동시는 서판서의 후취로 들어온 이 여인네는 점순보다도 훨씬 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소설의 설정대로라면 놀랄 만큼 치밀한 악인이다. “병원에서는 생사람을 잡아서 피로는 옷에 물을 들이고 살은 말을 먹인다는 애매한 말이 성행”하던 무렵이라니까 아마 갑오개혁 이전

일 텐데, 서판서가 인력거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신세를 진 것이 인연이 되어 재취 부인까지 된 이동집은 겉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암전해 보인다. 평민 출신이요 과부로서 판서의 정식 부인이 된 터이니 처지를 생각해 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처 소생인 갓난아이라도 어찌나 지성껏 길러내는지 서판서가 일찍 재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다. 이렇게 무려 15년이 지난다. 이동집이 전처 소생을 없애고 제 소생으로 가문을 잇게 하려는 흥계를 드러내는 것은 그 후, 의붓아들 오복의 혼인날부터다.

그러나 이동집은 오래 별렀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친자식마저 없애는 냉정함을 보인다. “둘 한 개를 어느 틈에 집어 (…중략…) 인정없이 들입다 치며” 자식을 죽이려는 것이다. 놀란 법관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이동집은 “그 놈을 위해 적아들 죽이기는 제가 재미를 보자는 것인데 저 죽는 터에 그 자식은 살려두어 무엇합니까”라고 한다.¹⁰ 뒤틀린 모성(母性)의 소산일 수도 있겠으나 이동집에게 있어 그 동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신소설의 악인은 이렇듯 놀랄 만한 개인주의자들이다. 하긴 그 내력 자체는 오래다. 야사(野史)에는 중국의 측천무후가 빈(嬪) 시절 제 자식을 죽여 황후를 모함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소설에서라면 『사씨남정기』의 교씨도 같은 계락을 쓰는 것을 방조했던 바다. 악은 폭력이나 살인 등 행위 자체의 비윤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충절과 지속성의 결여를 통해 비로소 악으로서 완성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외에는 어떤 공동성에의 헌신(commitment)도 외면하는 것이 악의 요건이다. 신소설에 있어 문제적인 것은, 이런 유사-개인주의적 감각이 놓인 사회적 위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¹⁰ 이해조, 『구의산』 하, 신구서림, 1912, 14쪽.

3. 선의 권도(權道)－악에의 대처법

개인주의와 개화

『귀의성』의 점순은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이익만을 좇는다. 『치악산』의 옥단은 남편의 죽음에도 개의치 않고 상전의 단물 빼는 데만 골몰한다. 이들은 배우자 사이 “순돌 아버지가 다른 계집에게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 나는 다른 서방 얻어 가지, 밤낮 게걸게걸하고 있을 망할 년 있나”(『귀의성』 69)라거나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다른 서방 얻어서 잘 살아라”(『치악산』 295)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부부간 인연이 상전에 의해 좌우되었던 조선시대의 역사를 실증하듯 종복(從僕) 출신 악인들은 살 맞대고 함께 사는 관계 앞에서도 냉정하다. 관계는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 선이 모든 관계에 착잡하게 매어 있고, 초보적인 악 또한 핵가족의 관계를 절대시하고 있다면, 무르익은 악은 세계를 계산과 합리성으로 대할 뿐이다. 『귀의성』의 본처가 죽음으로 응징당하는 장면에서, 남편의 정에 연연해하던 본처는 강동지에 의해 “잡년”, “쉽게 몸을 허락하”(하 119)는 일구이언(一口二言)의 인물로 매도된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은 악을 악으로서 확정한 후에야, 충실성이라곤 없이 자기 욕망만 따르는 존재로 악인을 낙인찍은 후에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외곶의 자기애가 종종 ‘개화’의 원칙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귀의성』에서 점순의 짝 작은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이 사람 내실 때에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남녀가 다를 것이 무엇 있단 말이나. 네가 행실이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두 계집을 두거든 네가 나를 버리는 일이 옳은 일이다 (…중략…) 두 내외가 의만 좋으면 평생을 같이

살려니와, 의가 좋지 못하면 하루 바삐 갈라서는 것이 제일 편한 일이다 (…중략…) 요새 개화 세상인 줄 몰랐느냐”(69). 주인 김승지의 축첩과 그로 인한 소동을 비꼬고 있는 작은들의 대사는 관계 자체에 연연해하지 않는 자유를 권장한다. 김승지 집안의 소동을 겨냥한 점에서라면 이 비판 자체는 그다지 예리한 것은 아니다. 김승지는 부인과 춘천집을 다같이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마누라 없이는 참 못 견디겠다 하는 생각”도 진지하게 떠올리기 때문이다. 김승지에게 있어 축첩은 ‘의가 좋으면’, ‘의가 좋지 못하면’ 등의 조건과 무관한 행위이다. 중들에게는 유동적 일부일처가 당연한 현실인지 몰라도 세력 좋은 김승지로서는 축첩이 더 자연스런 길이다.

작은들의 발언은 김승지에 대한 비판으로서보다는 자기 계층에 대한 옹호로서 더 기억할 만하다. 다른 이해가 없으면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태도, 관계를 중시하기보다 ‘나’에 집중하는 태도는 『귀의성』의 점순이라든가 『치악산』의 옥단이나 고두쇠 같은 인물이 잘 보여주는 바다. 이 홀가분한 개인의 자리, 이해만을 따질 수 있는 자리는 ‘개화’의 입지와 겹친다. 1900년대에 충분히 현실화되진 못했으나, 가문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개인과 국가 사이 일직선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계몽주의에 있어 개인의 가치란 중요한 것이었다.¹¹ 신소설에서 반상(班帶)의 질서가 남김없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나 — 중인(中人) 출신 전형적 여주인공들은 흔히 양반가 아들과 혼인한다 — 그 특유의 평민적 감각은 계급별로 분할된 도덕에서 개인을 구출하려 시도한다.¹² 한편으로 “사람의 행실은 반상으로 의

11 조금 후일의 일이지만 송진우의 「사상개혁론」에서 이 명제는 “개인은 家族線를 경유하여 사회에 도착할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사회를 관통하게 할 것”이라는 명제로 요약된 바 있다. 『학지광』 5호, 1915.2, 5쪽.

12 신소설 작가층은 양반계층의 주변부에서 주로 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자 출

논할 것이 아니오 (…중략…) 불상년이라도 제 마음 정렬한 사람도 많을 터”(『귀의성』 144)라는 전도나 “네가 숙부인 / 숙부인인지 숙부인인지 / 뺨대부인이라도 너같은 잡년은 없겠다”(하 119)라는 공박으로 반상의 질서를 재조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도덕률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던 하층의 삶을 그대로 ‘개화’의 윤리로 삼으려는 시도 또한 하는 셈이다. 홀가분한 개인, 공감에도 충실성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은 세계를 욕망의 잣대로만 재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치밀하게 미래를 계획한다.¹³

그렇지만 악인의 기도는 번번이 좌절한다. 『귀의성』 같은 독특한 소설에서조차 결국 승리하는 것은 창선(彰善)이라는 방향성이다. 『귀의성』은 춘천집 모자의 무죄한 죽음을 보여주지만, 그럼으로써 선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짓밟아 버리지만, 악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 신소설은 권선징악의 구도를 철저히 따르며, 이 구도에 어긋나는 부조리를 점점 더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죽었다는 인물을 무리하게 부활시키는 일도 불사할 정도다. 『구의산』에서 살해당했다던 신랑 오복이 멀쩡히 유학 생활을 하고 있

신 이인직이 그렇고, 경아리 집안 출신 최찬식이나 潘飛驒官補와 주사를 지냈던 구연학이 그러하며, 더 따져보아야겠지만 김교제 역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능참봉을 지낸 이력 등으로 보아 비슷한 계층감각을 가지지 않았는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혜조도 양무아문 등에서 기술직 판료를 지낸 이력으로 보아 조부가 처형당한 후 주변-신홍의 계층감각을 공유하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신분 배경 때문에 양반 중심 기성 질서에 대해 문제의식이나 원한 감정을 가질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결에 있어 어떤 방식을 지향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인직은 1910년 이후 경학원 부사성으로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위치를 기거이 수락했다.

13 중국에서는 일찍이 량치차오가 「十種德行相反相成義」에서 利己가 악덕이라는 관념을 거부하면서 민권사상의 기초는 “사람들이 저마다 털 한 올도 뽑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면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王暉, 송인재 역, 『절망에 반항하라』, 글항아리, 2014, 102쪽에서 재인용). 한국에 있어 이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입지는 극히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가득권 세력으로서 정치·경제적 요구를 표출했던 일진회의 경우 ‘민권 우선적 애국론’에서 출발했지만 ‘동양주의’라는 명분 하에 일본에 투항하는 결론을 보였다(김종진,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66~80쪽).

있던 정도는 악과요, 『현미경』에서는 복수까지 다 끝낸 뒤인데 처형당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고 『추월색』에서는 어려서 이별한 부모가 뜻밖에 만주 비적단 일원으로 나타난다. 춘천집 모자가 참혹하게 죽는 『귀의성』이나 충비(忠婢)의 죽음으로 시작했던 『빈상설』, 절개 굳은 기생 선초가 자결하는 『화의혈』, 주변적으로는 구원자였던 승려가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금강문』 등이 오히려 예외적이랄 수 있다.

『귀의성』이나 『화의혈』류의 예외성이 일반화될 수 있었다면, 신소설을 ‘우연의 남발’로 혹평하는 시각은 조금 비껴갈 수 있었겠다. 『귀의성』의 침모 어머니 — ‘눈먼 현자’인 이 인물 형상은 한국 서사 전통에서는 다소 낯설다 — 가 말하는 대로 “평생에 마음만 옳게 가지면 죽어도 옳은 죽음을 하느니라”(125)는 식의 권선징악이라면 지금이라고 못 받아들이기 바 아니다. 보답받지 못한 선의,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은 언제나 넘쳐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미 오래 전 『사씨남정기』에서 덕성의 화신 사씨가 되뇌인 바 있듯 “비간은 심장이 쪼개지고 오자서는 눈이 뿔뿔”이며 “굴원은 물에 빠져 죽었고 가의는 ‘복조부’를 지었”던 것이다.¹⁴ 세상의 이치란 믿을 수 없다. 애오라지 ‘사후(事後/死後)의 평판’으로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터이다. 소설 같은 서사가 무릇 이런 위안과 교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길 수도 있음직하다. 천주교 박해를 주도한 이경하의 무사종신(無事終身)과 왕비 시해범 우범선을 살해한 후 징역을 사는 고영근의 험로(險路)¹⁵를 함께 시야에 넣으면서 “나라에서 무죄하고 착한 사람을 많이 죽이면 그 나라가 망하는 법이요, 사람이 간

¹⁴ 金萬重, 류준경 편역,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88쪽.

¹⁵ 이경하와 고영근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시각의 정치성은 문제적이다. 이 대목은 이 인식이 조선 왕조의 천주교 박해에 대해 의견을 내비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악한 꾀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벌역을 입느니라”(『귀의성』 118)는 포괄적 해석을 내리는 식이라면 말이다. 하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창선과 징악의 서사에 끌리지 않는가.

착한 우연, 악한 계획

그렇지만 신소설에서의 권선징악은 대개 훨씬 폭이 좁다. 선인이 다쳐서는 안 되고, 악인이 무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보상은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소설은 아직 시간에 미루는 법을 알지 못하고, ‘미래’라는 영역의 우연성 — 또한 그 안에서의 필연성 — 에 기대는 법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단기적 우연성-필연성에의 의존이 필연적이다. 『치악산』의 이씨 부인은 최치운에게 욕을 볼 뻔한 위기에서 장포수의 구원을 받고, 장포수가 음욕(淫慾)을 발동한 후에는 여승 수월당에게 구원받은 바 된다. 다시 수월당의 암자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자살을 기도했을 때는 마침 시아버지 홍참의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홍참의는 공교롭게 며느리의 옛 종복이 사는 집에 도움을 청한다. 이부인을 계속 곤경에 밀어넣던 시누이 남순은 제 계략에 넘어가 흥한(興漢)에게 납치당하는데, 탈출해 나온 후에는 이씨 부인의 부친인 이판서에게 구조를 받는다. 우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우연의 남발을 비교적 자제하고 있다는 『귀의성』에서도, 춘천집은 첫 번째 자살 기도 때는 순검에게 구조를 받고 두 번째 자살 기도 때는 침모와 만나게 된다. 후반부에서 춘천집 모자의 시신은 김승지와 강동지 내외에 의해 두 차례나 ‘우연히’ 발견된다.

잠시 이 ‘우연’의 무대가 1900년대 당시에는 오늘날과 크게 다른 꼴이

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두도록 하자. 신소설에서의 술한 조우(遭遇)를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삶은 우연의 연속이기도 하다. 우연한 시공간에서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면서 우연한 선택이 삶을 형성한다. 문제되는 것은 우연의 빈도요 형태다. 우연의 환경으로서 군중(群衆)이란 지금으로서야 당연하지만 1900년대에는 꽤 낯선 발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귀의성』이나 『치악산』에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은 없다. 춘천집이 춘천을 떠날 때 와글와글, 침모가 시집간다고 거짓 고할 때도 도동 집이 와글와글, 강동지 내외가 춘천집 모자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봉은사 승려들이 법석거리지만, 이들은 익명의 ‘군중’이 아니라 친숙한 이웃이다. 좁은 원주 땅을 배경으로 한 『치악산』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산에 묻혀 사는 포수까지도 홍참의라는 이름 앞에서는 기가 죽고, “개똥 삼태기 메고 나선” 행인도 알고 보면 이웃집 개똥아범이다. 세계는 아직 친숙해 보인다.

간혹 익명의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인간관계의 기본꼴은 바뀌지 않는다. 신소설에는 신문물의 상징으로서 신식 교통기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기체는 새로운 관계로의 접속을 가능케 한다. 조출한 행장(行狀)을 갖춘 단출한 일행 대신 술한 승객을 싣고 있는 거대한 기구, 기차나 증기선 등은 절로 군중이라는 존재를 탄생시킨다. 군중 속에서라면 만남의 형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표피적 관계의 증식 속에서 짝트는 무관심의 상태(blasé)¹⁶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문물에 익숙치 않은 까닭인지 신소설에서 기차·증기선 같은 교통기관은 오히려 익숙한 관계 양상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기능하곤 한다. 『혈의누』에서

옥련과 구완서의 만남, 『고목화』에서 갑동과 조박사의 만남, 그밖에 증기선·철도·운동회 등 새로운 문물제도에 기반한 ‘옛날식 인연’은 모두 그 결과이다. 그렇다면 『귀의성』에서 철로를 베고 누워 있는 춘천집 몸 에 하필 김승지네 전(前) 침모가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는 특기할 만한 우연이 아니다. 『치악산』에서 일면식도 없는데 봉욕당하는 이씨 부인을 구해 주는 장포수의 협기도 낯설 수 없다.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있을 수 없고, 곤경을 못본 체 지나치는 마음도 있을 수 없다. 아직 세계는 낯익은 얼굴, 친숙한 인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인들은 그러나 우연을 가장해 자기중심적 계획을 관철시키는 데 익숙해 있다. 근대 이전에 이미 교묘해질 대로 교묘해진 바 있던 악의 계략은 신소설에 이르면 더 치밀해진다. 앞서 본 『귀의성』이나 『치악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선은 이윽고 악에서 그 치밀성을 배운다. 『귀의성』의 강동지, 『빈상설』의 승학 등은 모두 악을 무찌르기 위해 계교와 위장을 학습한 이들이다. 소설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 걱정 없이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고 기껏 여비 몇 푼 얻어내는 것이 목표였던 강동지는 악인들을 응징하기 위해 “머리 깎고 양복” 입은 전략가로 거듭난다(하 98). 김씨 부인이 신뢰하는 점쟁이를 매수하고, 김씨 부인과 점순 사이 우편을 가로채고, 점순과 최가를 속이기 위해 한 편 잘 짜여진 연극과도 같은 사기극을 연출해 낸다. 강동지 스스로 의식하고 있듯 ‘한성재판소’와 ‘부산재판소’를 거쳐 점순과 최가를 체포하는(하 94) 그런 방법도 가능하건만 그는 굳이 제도의 합리성 대신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는 복수의 방법을 택한다. 심지어 최가를 죽일 때는 일대일로 완력을 겨뤄 갈빗대를 부러뜨려 죽이기마저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 이전 개인과 개인의 격돌, 흡스적 자연의 상태다.

¹⁶ G. Simmel, 윤덕영·김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41~45쪽 참조.

『빈상설』에서의 승학 역시 쌍둥이 누이를 납치하려는 악인들에 맞서 자신이 여장한 채 누이인 척하고 나아가 감시역으로 자기 옆에 누운 처녀를 검탈하는 문제적 행동을 보인다. 이 때 승학이 하는 변명은 “범률상 죄인을 면치 못하겠으나 권도라는 권자가 이런 때에 쓰자는 것이지”(87)지만, ‘권도’는 임시변통을 넘어 인물의 존재 자체를 몰들인다.¹⁷ 『치악산』에서도 이씨 부인 때문에 죽을 뻔했던 충비 검단은 악인들의 악점을 이용해 도깨비불을 치밀하게 조작해 내고, 『구마검』에서는 함진해의 사촌 함일청이 무속을 역이용해 악당을 응징한다. 『금강문』에서는 주인공 경원의 무죄를 확신하는 교장 부인이 무당에 조역들까지 동원한 정교한 속임수의 연출자가 된다. 신소설의 세계에서 선이 살아남으려면 술직·단순한 덕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선인들 역시 악이 구사하는 것 같은 계산적 합리성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자기 내부의 자연 먼저 다스려야 하는 계몽의 역설¹⁸이 어느덧 한반도에 착륙한 것이다.

¹⁷ ‘권도’는 맹자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權’은 보편성을 뜻하는 ‘經’과의 관련 속에서 사물의 특수한 국면, 변화의 원리를 의미한다(백종석, 「맹자 철학에서 權道의 철학적 해석」, 『철학논집』 16호, 2008, 99~102쪽 참조). 신소설에 있어서의 ‘권도’ 개념에 대해서는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2 참조. 『현씨양옹쌍련기』 등 근대 이전 소설에서도 ‘권도’가 등장하는 일이 있으나 신소설에서는 그 양상이 훨씬 보편적·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¹⁸ T.W.Adorno,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6.

4. 잔혹과 폭력의 세계 질서

묘사의 힘과 물리력에서의 호소

신소설의 잔혹은 유명하다. 아마 『귀의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다. 오래도록 읽히고 회자된 이 소설에서 강동지는 법적 처분을 거부하고 “김승지의 재물을 욕심껏 빼앗”는 한편 “원수는 원수대로 갚”는 개인적 복수의 길을 택한다(하 98). 칼에 목을 찢리고 “결 좋은 장작 쪼개지듯 이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한칼에 동강나 죽은(하 24) 딸과 손주의 비참한 죽음을 배로 갚으려는 듯, 갈빗대 부러뜨리고 바위에 패대기치고 목 잘라 살해하는 잔인한 방법으로다. 그 밖에도 잔혹의 자취는 적지 않다. 『현미경』의 빙주가 “피가 뚝뚝 듣는 사람의 머리 하나를 쟁반에 받쳐서” 아버지 제사상에 올리고¹⁹ 『구의산』의 이동집이 제 자식을 박살내 죽이는가 하면, 『비파성』에서는 딸 원수를 갚겠다는 어미가 직접 악인을 칼로 베 버리고, 『봉선화』에서는 음모를 꾸민 주종(主從)을 칼로 난자해 죽인다. 신소설의 결말로 더 전형적인 것은 신지식과 덕성으로써 악인을 회개시키든지 법적 처분을 통해 정의를 관철하는 것이지만, 잔혹한 폭력을 사용한 결말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 오래 가는 인상을 남긴다. 일찍이 지적되었다시피 이런 잔혹의 양상은 1910년 이후 더 심각해진다.²⁰

근대 이전이라고 폭력과 잔혹과 공포가 없었을 리 없다.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는 폭력이 오히려 당연한 질서이다. 크로노스는 제 자식을 삼키

¹⁹ 김교제, 『현미경』, 동양서원, 1912, 20쪽.

²⁰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108~113쪽에서는 신소설에서의 잔혹을 대중성 획득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제우스는 아버의 배를 가르며, 오시리스는 갈갈이 찢겨 나일강에 던져지고, 시바는 파괴의 권능을 자랑한다. 여와(女媧)의 사체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나 「할망본풀이」가 보여주듯 가족 내의 사투도 서슴지 않았던 거인들의 후예이기도 하다. 힘의 지배보다 이념의 지배를 중시했던 중세에도 폭력은 왕왕 날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에서 마녀사냥의 고문이 웅변하듯 이탈자에 대한 폭력은 잔혹하고도 철저했으며, 아시아에서 인(仁)이나 자비의 윤리도 외부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소설에서라면 악을 개유(改諭)한다는 취지가 보다 일반적이지만 『사씨남정기』처럼 “염통을 쪼개고 간을 꺼내”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분노도 드물지 않다. 온후한 군자 유연수가 악녀 교채란을 두고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을 때, 현숙한 부인 사씨가 만류한 말은 기껏 “죽이더라도 그 신체만은 온전하게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다(155~156). 악이 친자식까지 죽이는 잔혹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효나 충이나 열(烈) 같은 덕목이 잔혹한 이면을 드러내는 일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열녀’라는 이름과 더불어 전해지는 사연 중 상당수는 끔찍한 잔혹성을 보여준다. 특히 임진란 당시 여성들의 최후는 “두 손가락과 발을 꿰고” “유방을 베고 배를 가”르는 생생한 묘사와 더불어 전달되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신체를 혹사했던 ‘열녀 잔혹사’의 적절한 반면(半面)이다.²¹ 설화 속 ‘열녀’들도 잔인하다. 억지 개가(改嫁)한 후 몇 년이 지나도 새 남편과 자식에 대해 일말의 연민 없이 복수를 해치운다. 불질러 살해하는 정도는 기본이고, 본 남편의 병을 고치겠노라며 새로 낳은 자식을 죽여 약으로 쓰기도 한다.²² 열(烈)이라는 명분 아래 이른바 인

21 강명관, 『열녀의 탄생—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320~323쪽.

간적 감정은 철두철미 모독당한다. 악이 잔혹의 근원인 만큼이나 도덕적 권위로서 군림하는 이념 역시 잔혹과 썩 잘 어울릴 때가 있다. 하긴 미시 권력이 다 발달하지 않았을 무렵 물리적 강제 없이 어떻게 권위를 주장하겠는가. 중앙 권력의 그물망이 치밀하지 않았던 만큼 폭력과 잔혹의 힘은 오히려 근대 이전에 압도적이다. 제도화되고 간접화된 폭력 대신 국지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성행하였다. 국가에 의해 독점되지 않은 폭력의 영역이 그만큼 넓었던 것이다. 다만 이때까지는 폭력과 잔혹 자체가 진지한 흥밋거리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묘사가 현실적이라기보다 관습적이었던 까닭도 크다.

그러나 이인직과 이해조가 각각 『혈의누』와 『빈상설』 서두를 통해 보여주었던 신소설은 묘사를 본격 도입한 양식이다. “평양성 외 모란봉에 떨어지는 저녁별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저 햇빛을 붙들어매고 싶은 마음에 붙들어매지는 못하고 숨이 턱에 닿은 듯이 갈팡질팡하는 한 부인”이라든가 “닭의 알 어르듯이” 같은 문장에서 드러나는 묘사의 힘, 이것이 신소설의 특징 중 하나다. 권위와 참조에 의지하는 대신 저마다 맨눈으로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세상²³ — 이것이 묘사를 요청하는 기반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폭력과 잔혹에 썩 잘 어울리는 환경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개인의 욕망을 최우선시하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물론이고 도덕률을 명분 삼는 주인공들에 있어도 잔혹은 힘의 증거다. 민족주의적 정념에서도 멀리 부강(富強)을 목표 삼느니보다 눈앞의 물리력을 과시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젊은 김구는 밀정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을 살해한 후 “손으로 그 피를 움켜 마시고 또 왜의 피를 닦아” 발랐으며²⁴ 망명 후

22 이인경, 「‘개가열녀담’에 나타난 열과 정절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6호, 1998.

23 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29~32쪽 참조.

신채호는 매국노에 대해 “혀를 빼며 눈을 까고, 쇠비로 그 살을 찢어 빼만 남거든 또 살리고 또 이렇게 죽”이겠다는 지옥을 구상한 바 있다.²⁵ 법과 도덕을 통한 질서 재정비가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진화론식 약육강식에 서의 우세는 쉽게 기대 볼 만한 근거다.

악으로써 악을 제어하기

『귀의성』의 김승지 부인은 “방망이로 춘천집 (…중략…) 대강이를 깨뜨려 놓고 싶다”거나 “그년의 자식을 생으로 부등부등 뜯어먹었으면 좋겠다”는 폭력적 분쇄에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치 않는다. 양반다운 가식을 다 털어낸 이 욕망은 과연 춘천집 모자의 잔혹한 죽음으로써 보상된다. 그러나 『귀의성』에서 벌어지는 총 네 차례의 살인 중 나머지 세 차례는 복수라는 명분 아래 강동지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것이다. 강동지는 악인들을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바위에 매쳐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인다. 대체 왜 이렇듯 노골적인 폭력을 동원해야 하는가? “요새같이 법률 밝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온 만큼 법에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 아닌가? 실제로 강동지는 법률적 응징의 가능성을 밝히 알고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추문(酬問)을 두려워하는 김승지를 협박해 한 재산 뜯어내는 한편 개인적·직접적 폭력으로써 악을 응징한다. 딸과 손자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느꼈던 즉각적 복수심, “점순이와 최가를 붙들어서 토막을 툭툭 쳐서 죽이고 김승지의 마누라를 잡아서 가랑

이를 죽죽 찢어 죽이고” 싶다는 증오를 마음껏 충족시킨다. 선과 악은 같은 형식으로 겨룬다.

앞에서 썼듯 악을 응징하는 데 노골적 폭력을 동원한 경우는 그밖에도 많다. 김교제의 『현미경』이나 이해조의 『비파성』과 『봉선화』, 김용준이 저작자로 돼 있는 『금국화』 등이 그렇고, 김교제가 쓴 『치악산』 하편에서도 계모는 용서되지만 노복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들 개인적 폭력에는 나름의 변명이 붙어 있다. 『현미경』에서는 아버지를 장하(杖下)에 죽인 원수가 세도가의 조카라 법에 기댈 수 없었다 하고, 『치악산』 『봉선화』에서는 “요새같이 밝은 세상”이 아닌 예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1910년대인 “지금은 개명시대가 되어” “아무리 부모가 제 자식을 죽여도 살인범으로 징역을 시키”게 되었으니 사정이 달라졌다는 부언(附言)을 잊지 않은 채다. 그러나 복수의 수행자 강동지가 ‘법’을 의식하고 있었던 『귀의성』과 마찬가지로 이들 텍스트에서도 근대법의 존재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현미경』에서는 빙주를 검거하기 위해 군경(軍警)이 총동원되고, 『치악산』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막에서 소동이 일자 즉각 군수가 나서며, 『비파성』과 『봉선화』에서는 복수 명분의 살인 직후 순사들이 범인을 찾기 시작한다. 서술자들의 변명과 달리 법은 충분히 가까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매개화되고 제도화된 정의로서의 법은 아득히 먼 것이다. 약자의 처지로선 더욱 그렇다. 예(禮)와 도(道)의 개념을 변용함으로써 근대의 물결에 대처하려던 노력에도 불구하고²⁶ 19세기 후반 이래 한반도의 현실은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라는 표어를 절감케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²⁴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8, 90쪽.

²⁵ 신채호, 『꿈하늘』, 송재소·강명관 편, 『꿈하늘』, 동광출판사, 1990.

²⁶ 김미정, 『차이와 윤리-개화 주체성의 형성』, 소명출판, 2014.

국제 질서에서도 국내 질서에서도 그러했다. 진화론적 경쟁을 대외적 원칙으로, 민족주의적 통일성을 대내적 원칙으로 이원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종종 후자를 압도해 버리곤 했다. 일진회를 통해 잘 드러나듯 입신출세에의 욕망 때문에 민족주의적 명령을 등지는 경우도 흔했다. 당연히 서로 잡아먹는 살육의 이미지가 부상한다. 먼저 갠 자는 앞장서 길을 이끄는 대신 자는 자를 먹이로 삼고, 강자는 약자로 배를 불리고도 일점 반성 없이 “천지간에 뒤흔친 이치”임을 자부한다. 인간은 ‘시랑(豺狼)’, 즉 승냥이나 이리 같은 짐승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빼앗고 싸우고 시기하고 흥보고 충을 놓아 죽이고 칼로 찢어 죽이고 피를 빨아 마시고 살을 깎아 먹”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갖추어야만 한다.

진화론적 세계상이 준 충격과 자극에 비한다면 법의 역할이란 미흡한 제어 작용을 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은세계』 『현미경』 등이 잘 보여 주듯 법이 수구 권력의 손에 장악되어 있기도 한 형편 아닌가. 힘에는 힘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 이것이 훨씬 진실에 가까운 말이다. 권도(權道), 잠시 정의롭지 못한 수단을 빌게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빈상설』의 승학은 ‘권도’로 처녀를 겁간하고, 『설중매』의 이태순은 ‘권도’를 써 심가로 변성명함하여 검거망을 피하며, 『소금강』에서는 활빈당에 대해 “비록 법을 범하는 패류의 하는 바이나 (…중략…) 남아의 (…중략…) 기개로 권도를 행함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규모를 지키어 우리 이천만 빈한 동포의 참혹히 죽는 것을 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²⁷ ‘권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악인들과도 경쟁할 수 있다. 악인들은 계산적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그 너머, 응보(應報)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무의

²⁷ 『소금강』, 『대한민보』, 1910.10.14.

식 중 인정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권도’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귀의성』에서, 『구마검』에서, 『치악산』과 『금강문』에서 ‘권도’로써 연출된 응보에 악인들은 어이없을 만큼 쉽게 기만당한다. 『치악산』에서 “밤이면 파란 물 들인 유리등에 불을 켜서 감추었다 내들었다 하여” 도깨비불을 가장했을 때 딱 한 명, 악노(惡奴) 고두쇠가 “귀신, 귀신이 다 무엇 말라죽은 것이나 (…중략…) 조 방정맞은 요 귀신 쫓아버리면 이번에는 우리 댁 마님이 우리 내외를 속량 아니하여 줄 수는 없지”라며 허풍스레 입찬 소리를 할 뿐이다. 꾀바른 악인들이지만 권도(權道)를 천리(天理)와 섞어 쓰는 용법 앞에선 아직 무기력하다.

5. 폭력과 간지(奸智)와 권선징악

폭력에는 폭력으로, 간지에는 간지로 맞서야 한다. 법과 도덕률이 잔혹한 흡수적 세계를 제어하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그 외부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전근대 소설에서도 악인들은 치밀하고 유능하며 합리적이지만, 등장인물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질서의 개입에 의해 패배하고 압도당하곤 한다. 군주가 총명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계(異界)의 존재가 왕립하는 일도 있으며, 순전한 우연이 작용하기도 한다. 주인공이 적극적인 입안자(立案者)가 돼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주인공은 오직 덕성으로써 완전무결하게 무죄하며 무력하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선인이 악인 못지 않은 책략을 꾸밀 줄 안다. 신소설의 중심에 놓인 여성 주인공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후원자들은 간지를 발휘하고 폭력까지 불사하여 악을 폭로하고 처벌한다. 권선징악의 틀은 그

대로 있으나, 이는 적극적 행동에 의해 지기되는 결론, 간지와 폭력으로 가득찬 세계를 같은 논리로 헤쳐 나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더욱이 『귀의성』처럼 권선징악이라는 틀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경우조차 없지 않다. 아무 죄 없는 춘원집 모자의 죽음은, 어떻게 잡는다 해도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다.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모티프는 너무나도 낯익은 것임에도 『귀의성』의 참혹한 죽음을 뒤엎지는 못한다. 어쩌면 서술자는 주인공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무절려 내기 위해 어린아이 몸통을 돌로 쪼개는 잔혹한 폭력을 구사했는가 싶기도 하다. 재생과 귀환의 모티프가 애용되는 세계에서 복구를 불가능한 일은 드물다. 죽은 줄 알았던 이들조차 속속 살아오고, 세계의 질서도 훼손되었는가 하는 순간 곧 복구된다. 그러나 잔혹이 뚜렷하게 개입한다면 양상은 달라진다. 『귀의성』의 잔혹한 살인 장면은 궁극에 있어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믿는 태도에 가하는 탐카포문 타격이다. 악인의 간지와 폭력은 세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해 버린다. 그렇다면 법에 호소하고 인의의 미덕을 드러내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인지 모른다. 폭력이 이미 보편적이라면 그에 맞서는 방법 역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소설에는 그런 보편적 폭력의 징후가 넘실대고 있다.